

OLED TV, 성장성 높으나 부진...

디스플레이서치, 2013년 출하량 5만대 불과 ... 연평균 성장률 160%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시장이 앞으로 7년 동안 연평균 160%에 가까운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디스플레이서치는 8월18일 2013년 TV용 대형 OLED 패널의 글로벌 출하량이 5만대에 달하고 2014년 54만대, 2015년 219만대, 2016년 570만대, 2017년 963만대, 2018년 1684만대, 2019년 2747만대, 2020년 3810만대로 연평균 158%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TV, 2세대 평판의 LCD·DVD TV를 잇는 3세대 OLED TV는 반응속도가 기존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액정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유기물질인 OLED를 사용해 뛰어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다.

또 별도 광원이 필요 없이 패널을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휘거나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꿈의 TV로 불려왔다.

LG전자(대표 구본준)가 2013년 1월 55인치 평면제품에 이어 4월 곡면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OLED TV 시장의 막이 올랐으나 아직 패널 생산효율이 높지 않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삼성전자(대표 권오현)는 2013년 6월 55인치 곡면 OLED TV를 내놓았고 8월 15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30% 이상 낮추면서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OLED TV의 2013년 출하량을 연초 제시한 13만대에서 5만대로 하향 조정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정체에 빠진 TV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19>